선도산림경영단지로 사유림 경영의 싹을 틔우다

강원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

글+사진 박세준_농수축산신문 기자

강원도 인제군은 전체면적의 96%가 산지인 산림의 고장답게 원대리 자작나무 숲, 내린천 래프팅,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대암산 용늪 등 각종 산림관광·휴양자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. 그 가운데 100% 사유림으로 이루어진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인제군 사유림 경영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. 눈이 포근히 내리는 겨울, 인제군산림조합과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해 사유림 경영의 미래를 살펴봤다.



강원도 인제군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